



MVPR-2008-29

VIP REPORT

2008. 8. 26.

■ 한국형 Slow City, 관광산업의 새로운 대안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이주량, 백흥기, 이장균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334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33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한국형 Slow City, 관광산업의 새로운 대안

Executive Summary i

1. Slow City 개요 1

2. 세계 관광산업의 변화 7

3. Slow City와 한국의 대안관광지 11

4. 한국형 Slow City의 필요성과 시사점 15

■ HRI 경제 지표 18

1. Slow City의 개요

(기원) Slow City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Slow Movement운동의 한 부분으로 1999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70개 이상의 도시 또는 지역이 Slow City로 선포되었으며 유럽 그중에서도 이탈리아가 중심이다. 이탈리아어로 Cittaslow로 불리는 Slow City는 1999년 10월 이탈리아에서 Greve-in-Chianti, Orvieto, Bra 그리고 Positano의 4개시의 시장들이 모여 Slow City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논의를 갖은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그 근원은 세계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출발한 Slow Movement라고 할 수 있다. Slow Movement는 이탈리아 로마의 Piazza di Spagna(스페그나 광장)에 맥도널드 햄버거 체인의 개점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로부터 출발한 시민운동인 Slow Food Movement로부터 비롯되었다. 세계화가 가져온 '빠른 세계 (fast world)' 곧, 전 세계가 갈수록 비슷한 모습으로 바뀌고 지역적 특성이 사라져가며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자연, 주변 환경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성(connectedness)'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Slow movement의 주 내용이다. 이는 '만족스러운(delightful)'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격) Cittaslow의 정회원 자격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맞추어야 하고 실사단의 판정을 받아야 하며 연간 회비납부 등의 의무가 따른다. 우선 50,000명이하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만이 후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Cittaslow의 현장이 정한 기준을 50%이상 만족시켜야 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실사 받아야한다. 판정기준은 크게 환경정책, 사회기반시설, 도시구조의 질적인 면, 지역 생산물의 사용 권장, 주민들의 친절함 그리고 Cittaslow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등의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의 Slow City) 이탈리아의 1곳과 독일의 2곳이 가장 성공한 Slow City의 모델로 손꼽힌다. 이탈리아의 오르비에토 (Orvieto)와 독일의 헤어스브룩 (Hersbruck)과 발트키르쉬 (Waldkirch)는 관광객의 증가와 새로운 삶의 방식의 도입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민들과 외부인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광장과 같은 공간을 만들고 지역의 레스토랑으로 하여금 그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요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연결성(connectedness)'을 극대화하는 작업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데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효과) 유럽에서의 경험은 Slow City의 선정과 더불어 그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관광객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Slow City방문이 관광의 새로운 형태가 될 수 있거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등 두 가지 가능성을 또한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2. 세계 관광산업의 변화

(큰 변화의 흐름) 21세기에 들어와 감지되는 관광의 세계적인 추세변화는 한 마디로 “3S(sand, sun, sea)”가 저물고 “3E(education, entertainment, excitement)”가 뜬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관광은 많은 사람들을 짧은 시간 안에 유명 관광지로 이동시켜 수용하고 “3S [sand (모래), sun (태양), sea (바다)]”로 대표되는 관광자원을 큰 규모로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대규모 관광(mass tourism or travel)”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와 ‘자연적, 사회적 그리고 지역적 가치에 부합하면서 방문자와 거주자 모두가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상호작용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의미하는 “대안적 관광(alternative tourism)”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이 새로운 흐름은 간단히 “3E [education (교육), entertainment (기분전환), excitement (자극)]”로 상징된다.

(대안적 관광의 등장) “대안적 관광”은 “대규모 관광”외의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으며 관광에 대한 수요와 공급조건 그리고 제도와 환경의 변화가 함께하고 있다. 현재 “대안적 관광”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분화 발전한 모습이다. 여러 가지 볼거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개최하는 국제회의와 전시회관광 (conference and exhibition tourism), 스포츠 행사, 훈련 또는 요트나 사이클링과 같이 개인이 혼자서 하는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스포츠관광 (sports tourism), 교회나 수도원 방문 또는 종교축제에의 참가가 목적인 종교관광 (tourism for religious reasons), 유적지나 문화행사에서의 참가가 주요 내용인 문화관광 (cultural tourism), 도시가 아닌 지방의 경제적 발전, 환경보호 그리고 해당지역의 자연과 역사보존을 종합한 관광인 생태관광 (eco-tourism), 그 외에 농촌관광(agritourism), 녹색관광(green tourism), 등이 잘 알려져 있다.

“대안적 관광”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닐 수 있는 근거는 관광에 대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이를 둘러싼 기술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변화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측면에서 잠재적인 여행자들의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 소득 상승, 고학력화와 그에 따른 높은 기대 심리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급의 수요에 대한 우위가 뿌리를 내린 관광시장에서 이의 공급자들인 관광관련 사업자들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된 것도 한 몫 하였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터넷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개인이 혼자서 여행계획을 짜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관광지에서의 교통 혼잡 증가와 테러에 대한 대비책으로 실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관련 조치들이 유명관광지보다 가까운 거리로의 여행을 선호하게 만들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새로운 관광지) Slow City는 “Slow Movement”와 “대안적 관광”이 합쳐져 탄생한 “느린 여행(slow travel)”의 최적격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느린 여행”은 계속 이동하면서 다수의 반드시 보아야 할 곳에서만 멈추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표준적인 패키지여

행과 정반대로 일주일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조용한 작은 도시나 농촌에 거처를 정하고 그 지역이 제공하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환경을 즐기는 형태를 취한다. “느린 여행”은 소비자들에게 바쁜 일상으로부터 잠시 떨어져 나와 자연과 직접 교감해보는 가운데 인생의 작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시간적 여유를 즐기면서 지역 주민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자유롭고 편리하게 주변과 자연을 탐험해보면서 쉬고자 하는 여행객들의 의도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Slow City가 제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망) “느린 여행”에 대한 수요가 향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만큼 Slow City에 대한 외부인들의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uromonitor International의 경우는 앞으로 5년 동안 서유럽에서 “느린 여행”이 매년 10%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하였다. 농촌지역으로 향하는 여행상품의 판매 규모로 추정하였을 경우 특히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등의 주요 국가들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경제발전과 더불어 방문의 대상으로서 Slow City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Slow City와 한국의 대안관광지

(한국의 Slow City) 2008년 전라남도의 4개 지역이 Slow City에 선정되었다. 3월 19일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담양군의 창평면, 완도군의 청산도, 장흥군의 장평·유치면 그리고 신안군 중도 의 네 개 지역이 Slow City로 선정됨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로 Slow City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창평면은 가사문학을 중심으로 한 전통가옥마을, 청산도는 사계절 푸른 바다와 전통, 장평·유치면은 친환경농업 그리고 중도는 천혜의 갯벌과 염전 등으로 잘 알려진 지역이다.

(한국의 대안관광지) 한국의 대표적인 대안관광지로 남이섬, 머드축제를 개최하는 보령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나비의 천국이 되는 함평을 들을 수 있다. 남이섬은 춘천이라는 도심 속에서 잠깐동안이나마 문명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범하고 낙후된 유원지에서 관광지로의 변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숲을 조성하고 관광객들이 묵는 숙소에서 텔레비전을 없애버리고 밤 10시 이후에는 전깃불을 켜지 못하게 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별밤과 모닥불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2001년 27만 명이던 입장객이 2003년 16만 명으로 증가했고 매출은 100억 원으로 늘어났다. 보령의 머드축제는 대천 해수욕장을 지역 관광명소로 홍보하고자 1998년에 시작되었다. 동양유일의 패각분 백사장인 대천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청정 개펄에서 채취한 진흙 분말로 머드 마사지를 하는 등 동시에 두 가지 바다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주 내용이다. 2007년에 총 217만 명의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추산되며 529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함평의 나비축제는 1999년 전직 생태 다큐멘터리 제작 PD가 군수로 부임하면서 시작되었다. 전국 지자체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가장 성공한 지역 축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08년의 경우 126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입장료 수입 99억 원 등 직접적으로 130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안관광지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의 대안관광지들은 Slow City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부분적으로만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중 남이섬이 가장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이섬은 느림의 철학 구현, 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대안적 삶과 사회모델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그 자체가 관광지로 지역주민들이 아닌 외부 관광객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보령의 머드 축제는 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한 것이 분명하지만 여름동안 개최되는 축제라는 면에서 느림의 철학이나 지역사회나 주민들과의 교감 그리고 대안적 사회 모델로서의 기능은 크게 떨어진다. 나비축제를 개최하는 함평은 환경과의 조화라는 면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축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느림의 철학이나 지역주민들과의 교감 그리고 대안적 발전 모델의 제시라는 면에서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4. 한국형 Slow City의 필요성과 시사점

(Slow City에 유리한 환경) 우리나라는 Slow City가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통계에 따르면 인구가 5만 명 이하인 시가 1개, 군이 5개 그리고 구가 1개로 53개 지역이 Slow City의 인구 상한선 규정을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느린 여행”의 주요 교통수단인 철도망 또한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한국적 모델의 필요성) 그러나 현재 성공한 것으로 밝혀진 Slow City가 유럽 그중에서도 이탈리아에서만 가능한 모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인증을 받은 대부분의 Slow City들이 유럽에 속해있으며 절반이상이 이탈리아에 소재하고 있다. 또한 분권적인 봉건체제를 경험하여 지역적 특성이 살아있는 유럽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기존 Slow City에서 관광은 하나의 부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Slow City로의 전환이 외부관광객의 증가와 지역의 경제상황 개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한국형 Slow City 정착을 위한 시사점) 외부 지향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3E개발, 관광객에 초점을 맞춘 편의 시설정비, 해외시장 개척 등이 필요하다. 첫째, 성공한 대안관광지를 통해 발견한 것처럼 일단 지역민들 보다는 외부인들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한국에서 “느린 삶”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 도시지역 그것도 수도권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도시민들을 배려하는 인위적이 아닌 자연스러운 어울림의 공간으로서 광장을 조성하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먹을거리를 개발하며 도시에서는 맞볼 수 없는 그러나 결코 불편하지 않은 숙박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셋째, 각 지역에 맞는 “3E”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태안과 함평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연친화적이고 참여적인 축제의 개최는 지역과 그 주민들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시민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넷째, 해외시장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남이섬, 보령 그리고 함평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형 Slow City, 관광산업의 새로운 대안>

Slow City의 개요

기원	-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Slow Movement의 한 부분으로 1999년 이탈리아에서 시작
자격	- 인구 5만 명 이하 등의 엄격한 기준의 충족과 실사 그리고 회비납부 등의 의무
모델	- 이탈리아의 오르비에토, 독일의 헤어스브룩 그리고 발트키르쉬
효과	- 유럽의 경험은 Slow City 선정과 관광객의 증가가 정(正)의 관계

세계 관광산업의 변화

큰 흐름	- 지는 '3S(sand, sun, sea)', 뜨는 '3E(education, entertainment, excitement)'
대안적 관광의 등장	- 기존 '대규모 관광'외의 나머지 모든 것을 포괄 - 관광에 대한 수요와 공급 조건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제도와 환경의 변화가 함께 함
새로운 관광지	- Slow City는 Slow Movement와 '대안적 관광'이 합쳐져 탄생한 느린 여행 (Slow Travel)의 최적격지로 각광
전망	- '느린 여행'에 대한 수요증가와 더불어 Slow City에 대한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Slow City와 한국의 대안관광지

한국의 Slow City	- 2008년 전라남도의 창평면, 청산도, 장평·유치면 그리고 증도의 네 개 지역이 선정 -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의 Slow City 보유 국가가 됨
한국의 대안관광지	- 남이섬: 잠시 동안 맛볼 수 있는 '탈 문명(脫 文明)'의 공간을 제공 - 보령 머드축제: 가장 흔한 개펄에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제공을 결합 - 함평 나비축제: 평범한 생명이 주는 아름다움을 자산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줌
비교	- 유럽의 대표적인 Slow City들은 환경과의 조화, 새로운 발전 모델 제시 그리고 외부 관광객과 지역민들의 자연스러운 교감 증진의 공통점 - 우리나라의 대안관광지들은 Slow City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남이섬'이 가장 근접

한국형 Slow City의 필요성과 시사점

유리한 환경	- 우리나라는 Slow City가 정착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잘 갖춘 것으로 나타남
한국적 모델의 필요성	- Slow City가 유럽 그중에서도 이탈리아에서만 가능한 모델이라는 주장이 제기 - 유럽식 Slow City로의 전환이 과연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
한국형 Slow City 정착을 위한 시사점	- 지역 주민들보다는 외부인들에 주인점 - 각 지역에 맞는 '3E'개발 - 도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정비하고 식당과 숙박시설 정비 -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한국형 Slow City, 관광산업의 새로운 대안

1. Slow City 개요

○ Slow City,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Slow Movement운동의 한 부분

- Slow City (이탈리아어로 Cittaslow)는 이탈리아가 기원

<세계의 slow city들>

국가	도시이름	계
호주	Goolwa; Katoomba, City of Blue Mountains	2
이탈리아	Abbiategrosso; Acqualagna; Anghiari; Barga; Borgo Val di Taro; Bra; Bucine; Caiazzo; Casalbeltrame; Castelnovo ne' Monti; Castelnuovo Berardenga; Castiglione del Lago; Chiavenna; Chiaverano; Città della Pieve; Civitella in Val di Chiana; Cutigliano; Fiumicino; Fontanellato; Francavilla al Mare; Giffoni Valle Piana; Greve in Chianti; Guardiaagrele; Giuliano Teatino; Levanto; Massa Marittima; Montefalco; Orvieto; Pellegrino Parmense; Penne, Pescara; Pianella; Pollica; Positano; Pratovecchio; San Daniele del Friuli; San Gemini; San Miniato; San Vincenzo; Santa Sofia; Suvereto; Teglio; Todi; Torgiano; Trani; Trevi; Zibello	46
오스트리아	Enns, Upper Austria	1
영국	Aylsham, Norfolk; Berwick Upon Tweed, Northumberland; Diss, Norfolk; Ludlow, Shropshire; Mold, Flintshire; Perth, Perth and Kinross; Cockermouth, Cumbria;	7
독일	Hersbruck, Bavaria; Waldkirch, Baden-Wuerttemberg; Ueberlingen, Baden-Wuerttemberg; Schwarzenbruck, Bavaria; Luedinghausen, North Rhine-Westphalia	5
노르웨이	Levanger, Nord-Trøndelag; Sokndal, Rogaland	2
스페인	Mungia, Basque Country	1
폴란드	Biskupiec, Warmia i Mazury; Reszel, Warmia i Mazury; Lidzbark Warmiński, Warmia i Mazury; Bisztynek, Warmia i Mazury	4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4

자료: Wikipedia (<http://en.wikipedia.org>).

- 1999년 10월 이탈리아에서 Greve-in-Chianti, Orvieto, Bra 그리고 Positano의 4개시의 시장들이 모여 Slow City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논의를 갖은 것이 직접적인 출발점¹⁾
-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70개 이상의 도시 또는 지역이 Slow City로 선포되었으며 주로 유럽 그중에서도 이탈리아가 중심

<Slow City의 로고>



- Slow City는 세계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출발한 Slow Movement가 새로운 주거 형태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발전하면서 탄생
 - Slow Movement는 이탈리아 로마의 Piazza di Spagna(스페그나 광장)에 맥도널드 햄버거 체인의 개점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로부터 출발한 시민운동인 Slow Food Movement로 거슬러 올라감²⁾
 - 세계화가 가져온 '빠른 세계 (fast world)' 곧, 전 세계가 갈수록 비슷한 모습으로 바뀌고 지역적 특성이 사라져가며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반대³⁾하면서 자연, 주변 환경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성(connectedness)⁴⁾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

1) "Can the U.S. learn from the Slow City Movement?," Planetizen, Oct 23, 2006 (<http://www.planetizen.com>).

2) Wikipedia (<http://en.wikipedia.org>).

3) Knox, Paul L. (2005), Creating Ordinary Places: Slow Cities in a Fast World, Journal of Urban Design, vol 10, no 1, Feb: 1-11.

4) 미국에서의 한 연구는 '만족스러운(delightful)' 삶을 살고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이 '연결성(connectedness)'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 줌

○ 엄격한 자격요건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준수가 요구

- Cittaslow의 정회원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요건과 판정 그리고 연간회비납부 등의 의무가 따름

- 50,000명 이하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Cittaslow의 헌장(manifesto)이 정한 기준을 50%이상 만족시켜야 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실사를 받아야 하며 매년 회비를 납부해야 함
- 환경정책, 사회기반시설, 도시구조의 질적인 면, 지역 생산물의 사용 권장, 주민들의 친절함 그리고 Cittaslow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등이 6개의 주요 평가 항목⁵⁾

○ 대표적인 유럽의 Slow City

① 이탈리아의 오르비에토 (Orvieto, Italy)⁶⁾

- 도시의 교통량을 최소한도로 억제

- 도시 안에서 주민들의 자동차 사용을 억제시키고 관광객들에게도 이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홍보
- 시 외곽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도시 중심부와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

<“만족스러운(delightful)” 곳에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이 가지는 느낌과 그 분포>

구분	비율 (%)
편안해짐을 느낀다. (I feel relaxed.)	83
나 자신과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다. (I feel more connected to myself.)	65.6
자연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 (I feel connected to nature.)	63
활력이 솟는다. (I feel energized.)	61.6
안전하다고 느낀다. (I feel safe.)	58
집 같은 느낌이다. (I feel at home.)	55.7
낯선 사람들과 가까워진 느낌이다. (I feel connected with other people.)	50
영적인 존재에 다가선 느낌이다. (I feel connected to spiritual essence.)	39
그 외 (others)	9

자료: O'Brien, Catherine (2006), A Footprint of Delight, NCBW Forum Article, Oct.

참고: 복수 응답에 기초

5) Slow Movement (http://www.slowmovement.com/slow_cities.php).

6) “Why life is sweeter in the slow lane,” The Independent, Jul 3, 2001.

- 도시주민들이 흙을 밟고 만질 수 있는 “orti sociali” 프로그램 실시
 -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채소를 직접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 노인들에게는 꾸준하게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자칫 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을 방지
- 광장과 레스토랑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어울림 실현
 - 레스토랑들로 하여금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 요리를 제공하도록 권장
 - 도시 중앙에 있는 광장에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고 작은 연주회를 수시로 열어 주민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오르비에토(Orvieto)시 전경>



자료: Wikipedia (<http://en.wikipedia.org>)

② 독일의 헤어스브룩 (Hersbruck, Germany)⁷⁾

- 1970년까지 사용되었다가 방치되었던 목초지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확인
 - 쓰레기 매립장이나 택지 또는 상업용지로 개발하기 보다는 이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목과 과일 농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발견

7) Mayer, Heike, et al (2006), Slow Cities: Sustainable Places in a Fast World, Journal of Urban Affairs, vol 28, no 4, Sep: 321-334.

- 오래전부터 길러온 사과나무들을 보호하고 활용하기로 결정
 - 유기농 사과 주스를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음
- 지역산물을 이용한 지역특산의 먹을거리를 지역의 식당들을 통해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이용할 방법을 고안
 - 29개의 농가와 17개의 식당이 공급자와 수요자 그룹을 결성하고 농가는 이들 식당에 재료를 공급하고 이를 이용한 음식물을 제공하는 식당은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지역 특산임을 강조
 - 난방, 주택시공, 가구 등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교육과 훈련을 제공

<헤어스브룩(Hersbruck)시 전경>



자료: Wikipedia (<http://en.wikipedia.org>)

③ 독일의 발트키르쉬 (Waldkirch, Germany)⁸⁾

- 버려진 마을회관을 복원
 - 이전까지 집 없는 사람들의 거주지나 그 부지가 폐차장으로 이용되어오던 시 소유의 주택을 'Red House'로 명명하고 이를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회관으로 개조

8) ibid.

- 'Red House'와 그 주변을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 'Red House'안에 식당을 만들고 지역의 실업자를 고용
 - 중고품 시장이나 정원관리, 창문 닦기, 심부름 서비스, 주택개조, 이상 등의 서비스 활동에 고용
 - 'Red House'앞의 광장에 '농민시장(farmers' market)'을 2003년부터 2주일에 한 번씩 개설하여 지역 특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인근 도시지역으로부터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함
 - 광장에는 자동차를 다니지 못하게 함으로써 외부의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주민들을 삶을 지역에 밀착시킴으로써 소속감과 자부심을 고양시켜 '사회적인 지속가능성(social sustainability)'을 향상시킴

<발트키르쉬(Waldkirch)시 전경>



자료: Wikipedia (<http://en.wikipedia.org>)

○ Slow City가 가져온 관광객의 증가라는 긍정적인 부산물

- 그동안 Slow City로 지정된 지역에서 관광객의 증가가 목격됨⁹⁾
 - Slow City에 대한 방문이 관광의 새로운 대안이 될 가능성 내포
 - 관광을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만족스러운 삶의 공존의 새로운 모델을 Slow City가 제시

9) “[광주] 아시아 최초로 ‘국제 슬로시티’ 지정,” SBS News, 2007년 12월 10일.

2. 세계 관광산업의 변화

○ 지는 “3S(sand, sun, sea)”, 뜨는 “3E(education, entertainment, excitement)”

- “3S”로 대변되는 “대규모 관광(mass tourism)”에 대한 인기 감소

- 지금까지 관광은 많은 사람들을 짧은 시간 안에 잘 알려진 지역으로 이동시켜 수용하고 그곳의 관광자원을 큰 규모로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대규모 관광(mass tourism or travel)”이 주류¹⁰⁾
- 유명 관광지, 곧, “3S [sand (모래), sun (태양), sea (바다)]”에 집중

- “3E”로 상징되는 “대안적 관광(alternative tourism)”에 대한 인기 증가

- 최근 들어 ‘자연적, 사회적 그리고 지역적 가치에 부합하면서 방문자와 거주자 모두가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상호작용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관광’¹¹⁾을 의미하는 “대안적 관광(alternative tourism)”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대
- “3E [education (교육), entertainment (기분전환), excitement (자극)]”추구가 주된 목적

○ “대규모 관광”외에 모든 것을 포괄하는 “대안적 관광”

- “대안적 관광”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분화 발전¹²⁾

- 국제회의와 전시회관광 (conference and exhibition tourism): 다른 여러 가지 볼거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개최
- 스포츠관광 (sports tourism): 스포츠 행사, 훈련 또는 요트나 사이클링과 같이 개인이 혼자서 하는 스포츠를 즐기기 위함

10) Mass travel could only develop with improvements in technology allowed the transport of large numbers of people in a short space of time to places of leisure interest, and greater numbers of people began to enjoy the benefits of leisure time [Wikipedia (<http://en.wikipedia.org>)].

11) Alternative tourism can be defined as 'forms of tourism that set out to be consistent with natural, social and community values and which allow both hosts and guests to enjoy positive and worthwhile interaction and shared experiences'(MOPE: State of the Environment/Eco-Tourism/2004).

12) “Alternative forms of tourism,” Trade with Greece, no 27, April/June, 2003.

- 종교관광 (tourism for religious reasons): 교회나 수도원 방문 또는 종교축제에의 참가가 목적
 - 문화관광 (cultural tourism): 유적지나 문화행사에의 참가가 주요 내용
 - 생태관광 (eco-tourism): 도시가 아닌 지방의 경제적 발전, 환경보호 그리고 해당지역의 자연과 역사보존을 종합한 관광
 - 그 외에 농촌관광(agritourism), 녹색관광(green tourism), 등이 있음
- 관광에 대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이를 둘러싼 기술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변화가 주요 이유¹³⁾
- 수요측면에서 잠재적인 여행자들의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 소득 상승, 고학력화와 그에 따른 높은 기대 심리 등이 작용
 - 공급의 수요에 대한 우위가 뿌리를 내린 관광시장에서 이의 공급자들인 관광 관련 사업자들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

< “대안적 관광” 이 등장하고 성장하는 이유 >

구분	요인
수요	인구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
	고소득
	고학력화
공급	높은 기대 심리
	공급의 수요에 대한 우위
기술	인터넷의 발달
	교통수단의 발달
제도	유명 관광지에서의 교통 혼잡 증가
	테러예방 조치가 가져온 불편함

-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터넷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개인이 혼자서 여행계획을 짜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능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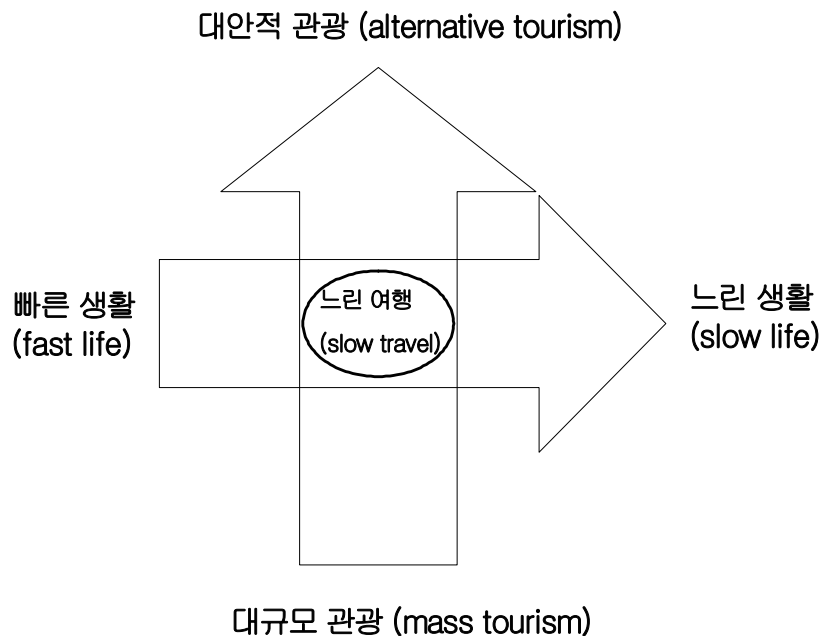
13) Ewa, Tyran (2007), Trends in World Tourism as a Chance of Rural Tourism Development, Proceedings, Inproforum 2007, pp 667-671.

- 제도적인 측면에서 관광지에서의 교통 혼잡 증가와 테러에 대한 대비책으로 실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관련 조치들이 유명관광지보다 가까운 거리로의 여행을 선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음

○ “느린 여행(slow travel)”의 주요 대상으로 떠오른 슬로시티

- “Slow Movement”와 “대안적 여행”이 합쳐져 “느린 여행(slow travel)”이 탄생¹⁴⁾
- 일주일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조용한 작은 도시나 농촌에 거처를 정하고 그 지역이 제공하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환경을 즐기는 형태
- “느린 여행”은 소비자들에게 바쁜 일상으로부터 잠시 떨어져서 자연과 직접 교감해보는 가운데 인생의 작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느린 여행”의 등장과 발전을 둘러싼 추세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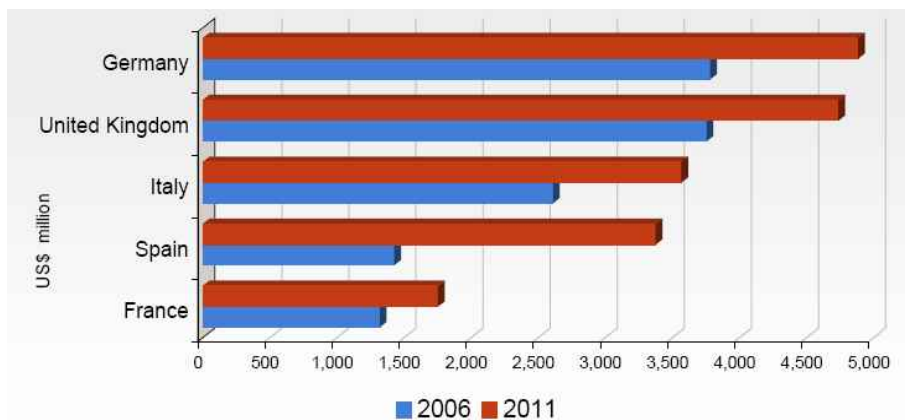


14) WTM Global Trends Report 2007, World Travel Market, Nov. 2007.

- 향후 꾸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느린 여행”

- Euromonitor International은 앞으로 5년 동안 서유럽에서 “느린 여행”이 매년 10%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¹⁵⁾
-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 농촌지역을 방문하는 여행상품의 판매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유럽에서 농촌지역으로 향하는 여행상품의 판매규모 비교, 2006/2011>



자료: WTM Global Trends Report 2007, World Travel Market, Nov. 2007.

- “느린 여행”을 택한 여행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슬로시티가 구비

- “느린 여행”에 대한 수요 증가로 숙박시설, 교통수단, 선호하는 여행지 등에 있어 지역주민이나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¹⁶⁾되며 현재 슬로시티가 이를 구현

< “느린 여행”의 증가가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변화>

구분	내용
숙박시설	아파트, 아파트 형 호텔, 농촌체험주택 등
장거리 교통수단	비행기보다는 기차
단거리 교통수단	자가용보다는 렌터카, 자전거
여행선호 지역	해외보다는 국내
해외여행 시 선호하는 지역	프랑스나 이탈리아

15) ibid.

16) ibid.

3. Slow City와 한국의 대안관광지

○ 2008년 전라남도의 4개 지역 Slow City에 선정

- 2008년 3월 19일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Slow City 선포식 거행

- 전라남도의 담양군 창평면, 완도군 청산도, 장흥군 장평·유치면 그리고 신안군 증도의 4곳이 아시아 최초의 Slow City로 선정
- 창평면은 가사문학을 중심으로 한 전통가옥마을, 청산도는 사계절 푸른 바다와 전통, 장평·유치면은 친환경농업 그리고 증도는 천혜의 갯벌과 염전 등으로 잘 알려져 있음¹⁷⁾

○ 남이섬, 보령 그리고 함평은 한국의 대표적인 대안관광지

- 남이섬은 춘천이라는 도시 속에서 잠깐동안이나마 문명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범하고 낙후된 유원지에서 관광지로 변화¹⁸⁾

- 한 전직 그림동화작가에 의해 평범한 유원지에 대한 역발상적 개혁이 2001년에 시작
- 14만 평의 섬에 잘 다듬어진 오솔길을 만들고 전나무와 자작나무 등 300여 종의 나무들을 빼곡하게 심어짐
- 예술가들에게는 무료로 창작의 공간을 제공하는 대신 그들의 작품을 남기게 함으로써 섬 전체를 미술관화 함
- 관광객들이 묵는 숙소에서 텔레비전을 없애버리고 밤 10시 이후에 전깃불을 켜지 못하게 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별밤과 모닥불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줌

- 관광지를 넘어서 대안적인 기업모델로 발전¹⁹⁾

- 2001년 27만 명이던 입장객은 2005년 167만 명으로 증가했고 매출은 100억 원으로 5배나 커졌고 직원 수도 100명을 넘어섬

17) “[광주] 아시아 최초로 ‘국제 슬로시티’ 지정,” SBS News, 2007년 12월 10일.

18) “생태·예술의 섬...소프트 관광자원의 힘,” 한겨레신문, 2006년 12월 18일.

19) ibid.

- 2000년 이전 거의 전무하던 외국인 관광객도 2005년 29만 명에 이룸
- 평생고용의 정신을 실제로 구현하고자 2006년부터는 '80살 정년'제도를 실시

<남이섬 방문객 수 추이>

년도	전체 방문객 수 (명)	외국인 방문객 수 (명)
2001	27만 5천	-
2002	65만	3만
2003	85만	12만
2004	140만	26만
2005	167만	29만

자료: "생태·예술의 섬...소프트 관광자원의 힘," 한겨레신문, 2006년 12월 18일.

- 보령의 머드 축제는 자연이 제공하는 가장 흔한 개펄로 시작²⁰⁾

- 보령의 머드축제는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한 지역 관광명소를 홍보하고자 1998년 7월에 시작
- 동양유일의 패각분 백사장인 대천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청정개펄에서 채취한 진흙 분말로 머드 마사지를 하는 등 동시에 두 가지 바다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것이 주 내용

- 다국적 축제의 장으로 발전하면서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²¹⁾

- 세계 4대 축제의 반열에 올랐다는 명성을 떨치고 있으며 격식 파괴와 스트레스 해방구로 통하면서 외국인에게 더 유명해짐
- 체험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놀이마당으로 축제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유달리 높은 것으로 알려짐
- 2007년 총 217만 명(외국인 7만 여명)의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서 2007년의 경우 529억여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는 1회 행사 때의 3억 5,000만 원과 비교해서 150배 증가한 규모
- 보령시는 보령머드제품의 판매로 300억 원 이상 지역경제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누린 것으로 보고 있음

20) "보령 머드축제, 250만 명이 즐긴다," 매일경제, 2008년 7월 19일.

21) ibid.

<보령머드축제 현황>

년도	전체 방문객 수 (명)	지역경제 파급효과 (원)
1998	31만 2,000	34억 6,000만
2000	54만	174억 9,000만
2002	106만 5,000	274억 7,200만
2004	146만 8,000	333억 5,400만
2006	172만 4,000	433억 4,300만
2008	250만 (예상)	560억 (예상)

자료: “보령 머드축제, 250만 명이 즐긴다,” 매일경제, 2008년 7월 19일.

- 함평의 나비축제는 지자체를 알리고자 시작된 행사지만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존경받는 축제로 발전

· 1999년 생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경험이 있던 방송국 PD출신의 군수가 함평이라는 지자체의 ‘청정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시작²²⁾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뽑은 타 지역 우수 사업>

순위	사업 명	득표수
1	전남 함평 ‘나비축제’	107
2	충남 보령 ‘머드축제’	10
3	강원 화천 ‘산천어축제’	7

자료: “이석형 함평군수·류화선 파주시장 ‘최고 단체장’ 뽑혀,” 조선일보, 2008년 6월 27일.

<함평 나비·곤충 엑스포 관람객 추이>

년도	관람객 (유·무료) (명)	입장료 수입 (원)	축제일 수 (일)
1999	60만	3,900만	5
2000	75만	1억 4,996만	5
2001	123만	2억 1,000만	9
2002	131만	1억 7,000만	8
2003	143만	3억 7,400만	8
2004	154만	3억 9,600만	10
2005	163만	5억 1,110만	10
2006	171만	6억 8,723만	10
2007	102만	3억 404만	6
2008	120만 7,622	87억 8,900만	45

자료: “함평 나비엑스포 관람객 100만 명...90억 수입 대박,” 서울신문, 2008년 5월 31일.

22) “함평, 나비와 함께 ‘나르다,’” 이코노믹리뷰, 2008년 3월 18일.

·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함평의 ‘나비축제’가 지역 우수 사업 중 최고로 선정²³⁾

- 지역경제에 대해 막대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동반

· 2008년의 경우 126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입장료 수입 93억 원 등 130억 원의 직접수입과 2,000억 여 원의 간접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²⁴⁾

○ Slow City와 비교하였을 경우 대안관광지 중에서 남이섬이 가장 유사

- 기존 Slow City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몇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

· 이탈리아의 오르비에토의 독일의 헤어스브룩 그리고 발트키르쉬는 주민의 삶과 지역사회에서 느낌을 하나의 철학으로 추구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새로운 산업도 주변 환경과의 철저한 조화 속에서 추진하며 주민들의 연결성 중시

- 우리나라의 대안관광지로 떠오르는 지역들은 Slow City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남이섬’이 가장 근접

· 남이섬은 느낌의 철학 구현, 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대안적 삶과 사회 모델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그 자체가 관광지로 지역주민들이 아닌 외부방문객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보임

· 보령의 머드축제와 나비축제를 개최하는 함평은 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한 것이 분명하지만 여름동안 개최되는 축제라는 면에서 느낌의 철학이나 지역사회나 주민들과의 교감 그리고 대안적 사회 모델로서의 기능은 크게 떨어짐

<대안관광지와 Slow City가 보이는 특성과의 비교>

	느림의 철학 구현	환경과의 조화	지역주민과의 교감	대안적 모델
남이섬	높음	높음	약함	높음
보령 머드축제	낮음	높음	약함	약함
함평 나비축제	낮음	높음	약함	약함

23) “함평군, ‘나비축제’ 전국 기초단체장 설문서 ‘최고,’” 조선일보, 2008년 6월 30일.

24) ibid.

4. 한국형 Slow City의 필요성과 시사점

○ Slow City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우리나라

- 2006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약 53개 지역의 인구가 5만 명 이하
 - 2006년 5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전수집계[인구부문]'에 따르면 인구가 5만 명 이하인 시가 1개, 군이 51개 그리고 구가 1개로 53개 지역이 Slow City의 인구 상한선 규정을 만족시킴
- “느린 여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나쁘지 않은 교통인프라
 - 느린 여행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철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총 철도연장은 2006년 기준으로 3,472km로 국토 면적 1km²당 0.035km (EU는 2007년 기준으로 0.054km, 이탈리아는 2006년 기준으로 0.064km 그리고 일본은 2006년 기준으로 0.062km)

○ 그러나 한국적 모델의 필요성이 증가

- 현재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밝혀진 SlowCity가 유럽 그중에서도 이탈리아에서만 가능한 모델이라는 주장이 제기
 - 인증을 받은 Slow City들의 대부분이 유럽에 속해있으며 특히 절반이상이 이탈리아에 소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
 - Slow City 정착의 중요한 요소인 지역적 특성에 있어서 짧은 시간 동안 분권적인 봉건사회체제를 경험하였고 그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유럽이 근본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선진국이지만 Slow City의 도입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미국의 태도를 통해서도 증명²⁵⁾
- 남이섬의 성공은 Slow City의 장점을 대안적관광과 적극적으로 결합한 형태
 - 기존 Slow City에 있어서 관광은 하나의 부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Slow City로의 전환이 외부관광객의 증가와 지역의 경제상황 개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지는 미지수

25) “Can the U.S. Learn From the Slow City Movement?,” Planetizen, Oct 23, 2006.

- 반면 남이섬은 섬 전체에 Slow City의 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외부에 널리 알림으로써 도시인들 사이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느림의 철학을 잠깐 동안 이나마 경험해보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

○ 한국적형 Slow City의 정착을 위해 외부 지향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3E” 개발, 관광객에 초점을 맞춘 편의 시설 정비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등의 노력이 필요

- 지역민들 보다는 외부인들에 주안점

- 지나치게 집중화되고 빠른 도시지역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느린 생활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느린 여행”에 대한 수요의 대부분을 제공

- 지역 특성을 반영한 “3E”를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축제 개최

- 주민들의 느린 삶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경제적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높음
- 외부 방문객들에게 “3E”를 경험할 기회와 대상을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場)을 조성

-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먹을거리를 개발하며 도시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러나 결코 불편하지 않은 숙박환경 제공

- 지역에서 생산한 청정 농산물을 이용한 먹을거리를 개발하고 이를 제공하는 지역 특유의 레스토랑을 운영
-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현대적인 숙박시설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도시민들에게 진정한 휴식의 공간 제공

-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개척

- 이탈리아식의 느린 삶과 대비되는 우리식의 느린 삶은 그 자체로 우리를 대표하는 관광 상품
- 보령머드축제와 함평 나비축제에 참여하는 외국관광객들의 꾸준한 증가는 우리 삶에서 발견한 “3E”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본 보기

연구위원 예상한 (syeahk@hri.co.kr, 02-3669-4181)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P)	2008(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7.0	3.1	4.7	4.2	5.1	5.0	4.9
	최종소비지출 (%)	7.6	-0.3	0.4	3.9	4.8	4.7	3.5
	민간소비 (%)	7.9	-1.2	-0.3	3.6	4.5	4.5	3.4
	총고정자본형성 (%)	6.6	4.0	2.1	2.4	3.6	4.0	4.3
	건설투자 (%)	5.3	7.9	1.1	-0.2	-0.1	1.2	2.8
	설비투자 (%)	7.5	-1.2	3.8	5.7	7.8	7.6	6.5
대 외 통 계 래 준	경상수지 (억 \$)	54	119	282	166	54	60	-10
	무역수지 (억 \$)	103	150	294	232	161	146	60
	수출 (억 \$)	1,625	1,938	2,538	2,844	3,255	3,715	4,330
	증가율 (%)	(8.0)	(19.3)	(31.0)	(12.0)	(14.4)	(14.1)	(16.6)
	수입 (억 \$)	1,521	1,788	2,245	2,612	3,094	3,568	4,270
	증가율 (%)	(7.8)	(17.6)	(25.5)	(16.4)	(18.4)	(15.3)	(19.7)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7	3.6	3.6	2.8	2.2	2.5	3.8
	실업률 (%)	3.1	3.4	3.7	3.7	3.5	3.2	3.3
금 융	원/\$ 환율 (평균 원)	1,253	1,192	1,145	1,024	955	929	995
	국고채금리 (평균 %)	5.8	4.6	4.1	4.3	4.8	5.2	5.0

내 인생 최고의 멘토를 만나다!

Creative business contents tank, Usociety

21세기는 지식 경쟁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트렌드, 나만 뒤쳐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비즈니스맨들의 창조력 충전 및 경쟁력 확대를 위한 지식 정보 콘텐츠,
Usociety에서 만나보세요.

비즈니스 지식 정보 TV, CreativeTV

창조의 5분, 성공의 5분! 그 5분을 위한 다이제스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Usociety의 미션입니다.
HD VIDEO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지혜를 나누십시오.



글로벌 비즈니스의 완성, EBS 어학 프로그램

최고의 어학 강의, EBS 어학 콘텐츠! 국내 대표 강사진들의 명 강의로 구성된 3,200편 이상의 풍부한 어학 프로그램을 Usociety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Business	Conversation	Global
영어인터뷰 START 인터뷰 영어족보 비즈니스영어 모질게 new TOEIC 비겁한 new TOEIC 외	Style English Survival English 영어 말하기 START Oxford 회화 말미잘 English 외	리듬 중국어 입문 이키이키 일본어 러시아어 첫걸음 스페인어 첫걸음 터키어 첫걸음 외

차별화된 경쟁력, Competency Tools

지식노트

경제, 사회, 문화에서 저널까지 한 눈에 보는 weekly webzine

U-Times

지식 트렌드를 손에 잡을 수 있는 콘텐츠 매거진

U-Planner

프로페셔널리즘의 시작, 웹 프랭클린 플래너

eBook

비즈니스에서 교양까지, 신간으로만 채워지는 digital library

